



차일목

김상훈

KIA 차일목·김상훈 연봉삭감 한파 ... 명예회복 위한 자존심 싸움

김상훈 47% 삭감 1억7000만원 재계약

차일목도 2000만원 깎인 1억원에 도장

‘연봉 한파’를 맞은 김상훈·차일목이 안방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예고한다.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상훈이 9일 1억7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지난 시즌(3억2500만원)보다 무려 1억5500만원(삭감률 47.4%)이 깎이면서 팀 최다삭감이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다.

또 다른 포수 차일목도 2000만원 삭감된 1억원에 도장을 찍으며 추운 겨울이 됐다.

김상훈은 지난 시즌 어깨 부상 여파로 80경기에 나와 0.172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88경기에 출전한 차일목은 0.256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도루 저지율이 0.246에 머물렀다.

두 선수 모두 부상과 부진으로 안방을 비우기도 하는 등 공격과 수비 그리고 베테랑 역할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연봉 한파에 직면했지만 올 시즌을

앞둔 두 선수의 각오는 뜨겁다. 앞서 두 차례 주장의 중임을 맡았던 김상훈은 올 시즌 선동열 감독의 주문으로 다시 한번 주장 임무를 수행한다.

KIA는 ‘말형’ 이종범이 떠난 지난해 베테랑의 부재 속에 가진 전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 고향에서의 첫 시즌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선동열호’는 시즌이 끝난 후 베테랑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자리를 갖기도 했다.

2009년 우승팀 주장으로 정상에 섰던 김상훈은 이번에는 ‘명가재건’을 위한 중임에 서게 됐다.

차일목에게도 올 시즌 가장이라는 책임이 더해졌다. 지난 가을 아들을 얻은 차일목은 12월 뒤통에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과 아빠라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경쟁자의 등장에 두 선수에게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부상에서 벗어난 이상수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

고, 넥센을 떠난 베테랑 포수 강귀태가 KIA에 새 동지를 틀면서 안방 경쟁이 치열해졌다.

남다른 각오로 맞은 2013시즌 이들의 행보도 남다르다. 겨울 휴식기에도 경기장에 나와 자를 훈련을 소화했던 김상훈과 차일목은 투수들이 소집된 4일 일찍 훈련에 돌입했다.

포수들의 뜨거운 자리 경쟁은 KIA에게는 반갑다.

이용규-김주찬으로 테이بل 세터진을 구성한 KIA는 부상병수가 없다면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안치훈·김선빈, 파워와 기동력에 따라 나지환·김원섭을 선택할 수 있다.

취약점으로 꼽히는 남은 포수 한 자리의 역할에 따라 쉬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타순이 완성된다.

막강한 선발진과 신예 투수들이 많은 만큼 배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상훈·차일목이 노리고 있는 명예회복은 두 선수 개인은 물론 KIA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환상의 스매싱

9일 송파구 방이동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3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남자복식조 경기에서 김기정(원광대)이 스매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시량(삼성전기).

/연합뉴스

WBC 우승 삼세번 도전

한국팀 15일 출정식

윤석민 등번호 28번

세계무대를 향한 한국야구의 세 번째 도전이 15일 막이 오른다.

제 3회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1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삼성 류종일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치진과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에 임하는 소감과 각오를 밝힌다.

선수들이 입고 댈 대표팀 유니폼도 발표된다. 나이키에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으며 유니폼에 새겨질 번호는 이미 확정됐다.

KIA 서재응과 이용규는 팀에서 사용하는 26번과 15번을 그대로 배정받았으며, 오승환(삼성)에게 21번을 내준 윤석민은 강렬



20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사용될 공인구.

한 인상을 남겼던 앞선 대회와 마찬가지로 28번을 단다.

대회에서 사용될 공인구도 MLB(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전달됐다.

2013 WBC 공인구는 롤링스 제품으로 2006년 첫 대회부터 사용됐다.

KBO는 선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 팀의 전지훈련 출발에 앞서 대표팀 선수들에게 공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구단, 지속적 구단 운영 가능해야”

양해영 KBO 사무총장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양해영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관해 “지속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10구단을 창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9일 “야구단 운영의 지속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능력, 야구 저변 확대에 대한 노력 등이 10구단 창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영·전북과 KT·수원이 7일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KBO

는 10일 평가위원회를 소집, 약 30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놓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11일 오전 9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신규 회원 가입안에 대해 심의한다.

양 총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 10구단 창단 기업과 연고 도시를 확정한다는 KBO의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중에 신생팀이 밝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미드필더 정경호 영입

“1부 승격 이뤄내겠다”

광주 FC가 청소년대표 출신의 미드필더 정경호(사진)를 영입했다.

광주가 9일 공격력 강화를 위해 지난 시즌 제주에서 활약한 U-20 대표 출신 정경호(25)를 영입했다. 2007 캐나다 세계 청소년 축구대표로 활약한 정경호는 좌우측면은 물론 중앙 공격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168cm의 단신이지만 탄탄한 몸과 빠른 발을 보유했으며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다.

2006년 경남에서 데뷔한 이후 K리그 통산(6시즌) 103경기에서 2골 7도움을 기록했다.

광주를 안방으로 해 뽐 경험도 있다. 2009년 전남으로 이적한 정경호는 2010년 광주 상무 소속으로 25경기에 나와 2도움을 올렸다.

정경호는 “광주에서 경기한 경험이 있어 친근한 기분이 먼저 든다”며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그라운드에서나 팀 내에서나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 반드시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내



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광주는 또 수비력 강화를 위해 제주와 전북에서 활약한 마철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

다.

2004년 부천에서 데뷔한 마철준은 중앙과 측면수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하며 통산 191경기에 나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일본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한 마철준은 광주와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여범규 감독은 “정경호는 단신이지만 빠르고 재치있는 플레이가 장점이다. 미드필더에서 충분히 활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은 선수들의 강인함과 고참 선수들의 노련미를 잘 융화시켜 2013시즌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이범호 ‘부상 탈출’ 위해 미국으로

재활조 전문 스타트

이범호가 ‘부상 탈출’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KIA 타이거즈 재활조가 9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해 전지훈련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던 이범호는 최항남·김진우·양현종·진해수·박지훈(이상 투수), 포수 김상훈과 재활조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겨울 휴식기 동안 서울에서 개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범호는 지난 7일 시작된 합동훈련에 참가해 수비훈련까지 소화했다. 선동열 감독이 ‘완벽한 재활’을 요구하면서

재활조로 일찍 따뜻한 곳에서 몸만들기에 들어간다.

재활조를 시작으로 KIA 투수조는 13일 미국으로 출발하고, 야수조는 20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재응의 조기 출국은 연봉협상 문제로 무산됐다.

서재응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준비를 위해 재활조와 함께 9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봉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연봉이 4000만원이 삭감됐던 서재응은 동결(2억9000만원)과 인상을 놓고 구단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축제 /트래킹/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정동진 일출

추암 핫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대관령 눈꽃

눈꽃 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2월1일(무박2일)
23:3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대관령에서 일출관망/알펜시아 스페셜
동계올림픽관/대관령눈꽃축제장